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과 한국전쟁 중의 병영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rocess of Military Library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S. Armed Forces Library Services during the Korea War

송 승 섭(Sung-Sub S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1. 미국의 병영도서관 현황과 조직 |
| II.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 2. 미국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
| 1. 병영도서관의 개념과 선행연구 | V.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과 시사점 |
| 2.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 개관 | VI. 결론 및 제언 |
| III. 한국전쟁 중의 미군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 |
| IV. 미국의 병영도서관 현황과 서비스
프로그램 | |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중도서관 설치 운동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병영도서관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미국의 병영도서관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한국 전쟁동안에 있었던 미군의 병영도서관 활동을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다음, 미국의 병영도서관 조직, 설치현황과 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하였다.

주제어: 병영도서관, 진중도서관, 군대도서관, 도서관사

ABSTRACT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significance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military library being recently issued as a movement to establish a library in the military units in Korea, focusing on the library management of military in the United States. Firstly, the history of military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military library service of the U.S. Armed Forces during the Korea War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establishing status, organization, and the contents of library servic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was researched.

Key Words: Army Library, Military Library, Force Library, History of U.S. Army Library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자료실장, 명지대학교대학원 문헌정보학 강사(libsong@unikorea.go.kr)
• 접수일: 2005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8월 25일

I.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병영도서관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적 연구로는 국내의 병영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제기한 2003년도의 필자의 논문¹⁾과 역시, 필자가 본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2004년 병영도서관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서 발표한 미국의 병영도서관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²⁾ 이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논문이 나오지 않았다. 워낙 우리 분야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적인 병영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많은 논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역시 ‘군’이라고 하는 특수집단을 다루어야 하는 현실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이 2003년도에 의원입법으로 통과되어 병영도서관이 특수도서관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완전한 강제력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각 급 군 기관에서 소위 ‘병영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로서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³⁾가 ‘병영도서관’관련 법률 통과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영도서관을 하나의 공고한 제도적 장치로 병영에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필자는 첫 번째 논문을 통해 개념조차 낯선 ‘병영도서관’의 의의와 건립 필요성을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예를 들어 그 현황과 역사를 중심으로 개괄적이거나 고찰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하여, 국내의 병영도서관의 건립 운동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과제를 집중적으로 논구 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의 병영도서관 사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필자는 미국의 병영도서관 사서였던 Katherine J. Harig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제 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밝혔을 뿐만 아니라, 병영사서들과의 인터뷰와 설문 분석을 통해 병영도서관의 제 측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역작이다.

이에 필자는 국내에서의 병영도서관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그 모델을 찾는 과정에서 그 간의 선행 논문과 Harig의 저서 내용이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하고 한국 전쟁 중의 미군의 병영도서관 서비스를 조사하는데 대단히 유효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 논문을 시작하

1) 송승섭,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 도서관, 제58권, 제3호(2003, 가을), pp.77-102.

2) 송승섭, 병영도서관 독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2004, pp.3-16.(이 글은 필자가 2004년 12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병영도서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서 발표한 자료를 ‘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에서 편집, 편찬한 것임).

3) <<http://www.bookn anum.org/>> [cited 2005. 8. 31].

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를 중심으로 그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또한 그 한 사례로써 한국전쟁 동안에 한국에서의 미국의 병영도서관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수용하고 접목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II.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이론적 배경

1. 병영도서관의 개념과 선행연구

몇 년 전부터 군부대에 도서관 만들기 운동은 ‘진중도서관 건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지만 ‘군부대에 책보내기 운동’은 지금부터 30-40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개별 독지가의 기증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군부대내의 도서관 설립이 제도화되면서 군부대 도서관을 어떻게 부르고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군부대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어떤 명칭의 서술적인 설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르는 쉽지만 전문용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와 ‘중앙일보사’는 ‘진중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왔다.⁴⁾ 여기에서 ‘진중(陣中)’이라는 어휘는 “군대나 부대의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중도서관’이라 함은 “군대나 부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라기보다는 고어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기에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2003년 5월 29일 공포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⁵⁾의 개정내용에는 심의 과정에서 ‘진중도서관’이 ‘병영도서관’으로 수정되어 표기되었고⁶⁾, 이는 최종적인 법률안에 반영되어 현재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병영(兵營)’이라는 뜻은 “병사가 집단으로 들어 거주하는 집”으로 병사(兵舍)나 영사(營舍)를 의미한다. ‘병영’이라는 어휘도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군 생활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전문용어 성격을 갖고 있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병영도서관’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4) 중앙일보사는 ‘진중도서관 건립 캠페인’을 2003년 중앙일보 10대 사업으로 선정하여 1년여간 진중도서관 건립운동을 (사)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와 함께 펼쳐나간 바 있다 (사)사랑의 책나누기 운동본부 민승현 본부장은 1991년부터 사재를 털어가며 산간벽지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도서를 지원하던 중, “군대가기 싫다”는 이들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군의 현실에 눈뜨게 되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 민씨는 이후 1999년 4월부터 현재의 ‘사랑의 책 나누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03/1/23).

5)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06호

6) 국회문화관광위원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조사보고서(2003), pp.1-18.

하는 특수도서관”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Military Library’와 ‘Army Library’라는 명칭을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에 근무하는 사서를 ‘Army Librarian’ 또는 ‘Military Librarian’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다. 그만큼 사서직의 구분도 전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으로 살펴볼 때, 이 둘 용어는 미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⁷⁾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04년 판 Western Connecticut 주립대학의 온라인 사전⁸⁾ (ODLIS: Online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검색해 본 결과는, ‘Military Library’만 등록되어 있고 ‘Army Library’는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빈도수는 ‘Military Library’보다는 ‘Army Library’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의 혼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좀 더 엄밀하게 볼 때, 단어 ‘Military’와 ‘Army’는 일반적으로 같이 쓰이지만, ‘Army’가 육군을 주로 지칭한다는 점에서 군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Military’라는 어휘 사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적으로는 대부분의 병영도서관이 육군도서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DLIS에 현재 나와 있는 ‘Military Library’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군도서관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군 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군 종사자들의 이용을 위해 장서를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되어있다. 부연한 것을 보면, 좀 더 넓은 의미로 군도서관은 “일반도서관(예: 미 해군사관학교도서관인 Nimitz Library⁹⁾)에 대한 접근능력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⁰⁾

위의 개념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도 군도서관을 특수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병영도서관을 “병영 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으로 법령에 규정해 놓았다. 미국의 경우도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군 기관에 의해 유지되고, 군 종사자들의 이용을 위해 장서를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고 조정하는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Federal and Armed Forces Libraries Round Table: FAFLRT)¹¹⁾이라는 도서관 협회 내의 전담기구가 있어 제도적으로 상당부분 진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²⁾

앞 서 서론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병영도서관’관련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소개한 필자의 논문 외에 2004년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발표한 민승현의 논문¹³⁾이 있을 뿐이다. 민

7) ALA.,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1983).

8) <<http://lu.com/odlis/>> [cited 2005. 8. 31].

9) <<http://www.nadn.navy.mil/Library/>> [cited 2005. 8. 31].

10) <<http://www.wcsu.edu/library/odlis.html#M>> [cited 2005. 8. 31].

11) <<http://www.ala.org/alaorg/rtables/flrt/>> [cited 2005. 8. 31].

12) 송승섭,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방향,” 도서관, 제58권, 제3호(2003, 가을), pp.80-82.

13) 민승현, “이제 새로운 군대를 이야기 하자 : 병영도서관 건립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제2회 전국도서관자료집

승현의 글에는 우리나라 병영도서관의 건립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부 운동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¹⁴⁾ 이 밖에 군 교육기관에 있는 도서관에 관한 연구¹⁵⁾는 일부 있었지만 병영도서관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다.

또한 외국의 선행연구도 많지 않다. 특히 미국의 병영도서관 연구로 제한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앞서 소개한 Katherine J. Harig의 저작으로 1917년부터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사를 1980년대 까지 종합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군 주둔지에 있는 사서들을 직접 만나는 한편 설문 조사를 통해 병영도서관의 일반적인 현황 및 서비스 프로그램,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그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였다.¹⁶⁾ Harig의 저작에 영향을 미친 자료로 Mary Stillman이 쓴 “미군도서관 서비스: 그 역사, 조직과 관리”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¹⁷⁾ 그러나 이 논문은 공군병영도서관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었고, 1960년대까지의 짧은 역사만을 다루고 있다.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 박사학위 논문 한편을 제외하고는 육군 도서관의 역사를 다룬 Doris W. Gilbert의 “오늘날의 육군도서관”¹⁸⁾과 군대에서의 교육에 대한 도서관 지원 문제를 다룬 Margaret C. Montondo의 “육군도서관프로그램의 육군종합교육개발프로그램 지원”¹⁹⁾ 등 두 편의 미간행 석사논문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폭넓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밖에 해군도서관의 역사를 다룬 Skallerup의 저작²⁰⁾과, 군대에서의 교육과 평생교육의 문제를 다룬 여러 편의 논문이 있었지만 본 고의 주제의 깊이와는 차이가 있어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2.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 개관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는 대략 20세기 전반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17년에 미국도서관협회

(2004), pp.412-434.

- 14) 이 글에, 진중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회 조찬토론회(2002.3.26), 병영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육군회관 2002.3.26)에서 발표된 일부 자료가 소개되어 있지만, 이 둘이 별도의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지는 않았다.
- 15) 대부분 군 관계자의 학위논문으로 1)홍복일, 한국 군도서관의 재조직에 관한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p.137. 2)오수국, 군 도서관의 운용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84), p.56. 3)오수국, 군교육기관에서 학술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1), p.94. 등이 있다.
- 16) Katherine J. Harig, *Libraries, the Military, & Civilian Life*, *Library Professional Publications*(1989), p.194.
- 17) Mary Elizabeth Stillman, *The United States Air Force Library Service : Its Histo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Thesis(Ph. D.), University of Illinois, 1966).
- 18) Doris W. Gilbert, *The Army Library Today* (Thesis(MSL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1), Gilbert의 논문 외에 육군도서관의 역사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Shirley Havens의 글이 있다 “A Day with the Army,” *Library Journal*, 91(Feb. 15, 1966), pp.894-900.
- 19) Margaret C. Montondo, *Support Given the Army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 by the Army Library Program* (Thesis(MSL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9)
- 20) Harry Robert Skallerup, *Books Afloat and Ashore : Libraries and Reading among Seamen during the Age of Sail*(Hamden, CT : Shoe String Press, 1974).

는 의회도서관의 지도 하에 전시도서관서비스(War Library Service)를 설립하였다. 이 새로운 준 병역서비스는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육군과 해군의 군인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년 이후, 1921년 ‘육군 도서관서비스’(Army Library Service: 일종의 “도서관담당 파나 ‘계’수준의 활동”으로 추정됨)가 육군부(War Department)에 있는 부관 병과(Adjutant General’s Office)의 활동 영역으로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때에 미국, 필리핀의 섬들, 그리고 하와이와 파나마에 있는 군부대 주둔지에 228개의 도서관들이 설치되었다. 기금 부족을 덜기 위하여 이동도서관 장서(traveling library collection)가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주둔지 도서관의 장서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최초로 이동도서관들은 각각 25권의 장서로 구성되었고 나중에는 50권 또는 60권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책 꾸러미와 같은 패키지 형태로 전달되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군도서관 서비스 체제는 출발되었지만, 1930년대 내내 이 프로그램을 지원 할만한 직접적인 일들이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군단지역 사서들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재배치 되지 않았다. 앞선 전쟁기간 동안에 사서들이 군의 사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그 도서관들을 운영해 왔던 전문사서로서의 존재는 사실상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된 것이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야 ‘육군부 병영도서관서비스 책임자’(War Department Representative of the Army Library Service)라고 명명한 하나의 고정 직위가 ‘부관병과 정훈계’(Morale Branch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에 만들어졌다. 이 자리는 책을 선택하고 구입하며, 도서관 업무에 대해 ‘육군부’를 도와주는 우선적인 책임을 갖으며, 다음으로 사령부의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서 전문직 사서가 채용되었다. 도서관 서비스의 세부 계획과 조직은 미국에 있는 군부대 본부와 해외 전역사령부에서 만들어졌다.

1942년의 육군부의 주요 개편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비였는데, 정훈계는 특수군무분과로 되돌아갔고, ‘육군부의 육군 현역 군부대 사령부’(Army Service Forces Headquarters of the War Department) 밑에 배치되었다. 다른 두개의 주요한 군부대는 육군 지상부대(Army Ground Forces)와 육군항공대(Army Air Forces)였다. 육군 도서관서비스는 특수영역봉사의 도서관섹션이 되었고, 다음 30년 동안 이 분과의 극히 중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그 같은 해, 도서관 섹션은 특수군무분과의 교육계(Education Branch of Special Services Division)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분과의 사명은 확장되었고, 교육적 교화적 사명들이 많이 달라지고 복잡해져 1943년에 교육계(Education Branch)는 분리되어 나갔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렇게 주입적 교화기관이 아니며 보다 폭 넓은 사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특수군무분과로 남게 되었다.

1945년 봄에 도서관섹션이 특수군무분과 안에 지부(계) 위치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전후 병영도서관 서비스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 서비스와 사무소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제안도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부 사령관들은 도서관이 가지는 사기진작 효과와 교육적 혜택을 깨닫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속을 위한 청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냉전이 시작되고 강력한 군대에 대한 요구가 분명해지자, 지역사령관들과 지휘관들은 도서관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기(Morale), 복지(Welfare)와 레크레이션(Recreation)프로그램(이하: MWR)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요구로 국회를 압박했다. 한국과 베트남전투는 군대지원 요소들을 강화시켰으며, 사기, 복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향상시켰다. 이후 1990년대 이래, 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군부대 주둔지의 가장 중요한 『MWR시설』의 하나로 이용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군인들을 위한 사기진작과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군대서비스를 통해 인식되고 있다. 종종 일반적인 도서관들로 불려지기도 하는 『MWR도서관』들은 그들에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 지역사회 및 가족지원센터 도서관 프로그램(US Army Community and Family Support Center Library Program: CFSL)은 20세기 육군부의 병영도서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세습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의무 역시 다르지 않다. 그 임무는 중앙집중식 수서, 도서관 서비스 기준을 위한 정책설정과 규칙제정, 사령부 사서(command librarian)를 통한 조언과 안내 등으로 되어 있다.

21세기가 시작됨으로써, 도서관들은 도서관이나 사무실과 집으로부터 원격으로 온라인 레퍼런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레퍼런스의 출처들은 육군-지식온라인(Army Knowledge Online)²¹⁾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은 원격지의 파나마,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와 같은 임시군사행동지역에 위치한 군인들에게는 보급판으로 된 일체의 책을 제공하기도 한다. 군인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병영도서관들은 그들의 사명, 복지, 교육적 봉사를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다.²²⁾

Ⅲ. 한국 전쟁동안의 미군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운영 사례는 부분적이지만 미국 본토를 비롯해 미국이 참전한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고,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서두에서 밝힌 연구 목적에 따라, 한국전쟁 중에 참전한 미국의 군인들을 위해 한국에 설치되었던 미군의

21) <https://www.us.army.mil/portal/portal_home.jhtml> [cited 2005. 8. 31].

22) 위에서 기술한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는 다음 사이트의 전체 내용을 번역하여 재구성한 것임
<<http://www.armymwr.com/corporate/programs/recreation/libraries/history.asp>> [cited 2005. 8. 31].

병영도서관 역사와 당시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의 미국의 병영 도서관의 기능과 의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Harig가 기술한 것이 고²³⁾,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한 것이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출발선에서의 병영도서관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한국전에서의 공군의 활동에 대한 주요 정보원인 Mary Elizabeth Stillma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49년 11월 15일에 공군도서관부는 육군으로부터 해외의 공군도서관의 관리를 맡게 되었으며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감독하기 위한 직원과 사령부 사서들이 임명되었다.²⁴⁾

대부분의 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전히 시설들을 옮기고 있었고 직원들을 배정하는 활동 중에 있었다. 전쟁이 시작될 당시의 한국에는 병영도서관이 없었다. 공군도서관과 육군도서관 프로그램들은 개별 독지가들과 출판사에 대해 보급판 도서와 잡지 지원을 호소하였다. 조달에 있어서 시간 지체는 미국에서 도매상(중개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본에 있는 일본 군수사령부와 공군도서관의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완화시켜 나갔다. 일부 일본에 있는 해병 공군부대들은 그들이 철수할 때 그들의 도서관을 한국으로 옮겨왔다.²⁵⁾

육군은 한국에서 보급판 도서 보급 이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1951년 7월, 당시 극동아시아 공군사령부 사서였던 Virginia A. Staggers가 그곳에 “항구적인 성격”의 도서관 서비스를 만들고 직원을 두는 계획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 계획은 공군도서관 책임자였던 Harry F. Cook의 방문 이후 승인되었으며, 1952년 1월에 Staggers와 Dortha Surtees가 60일간의 일시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도착하였다. 그들은 이후 대체되었으며 뒤따라서 많은 다른 전문직 사서들이 그 상황을 분석하고 기존의 하드백 장서들을 조직화 해나갔다. 공군은 자료비용에 대처하여 1952년 1월, 3,500원에서 4,000원의 장서들을 한국에 들여보냈다. 1952년 6월쯤, 상시적으로 배치될 사서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들은 전체적으로 13개의 주요 거점도서관, 12개의 필드도서관, 44개의 기탁 장서들을 맡아 직원으로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 모든 작업은 1년이 못되어서 완료되었다.²⁶⁾

Alexandria J. Bagley는 참모사서로 임명되었다. James Conway는 북부지역 감독관이 되었으며, Vivian Lynn Dobbs는 남부지역을 맡았고, Syble Adams는 그 곳 활동들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구에 있는 병참부에 남아 있었다. 한국에 배치된 사서들 중에는 이전에 공군 근무경험을 누구도

23) Harig, *ibid.*, pp.33-35.

24) Stillman, *ibid.*, p.147.

25) Stillman, *ibid.*, p.148.

26) *Ibid.*, p.150.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5공군 부대는 다른 많은 분관과 같이 하나의 중앙도서관시스템으로서 운영되었다. 지역 감독관들은 그들의 각각 25개의 도서관에서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조언을 해 줌으로써 운영을 계속해 나갔다.

대구의 병참부(보급창)는 이 시스템의 허브였다. 그 곳에 있는 5명의 참모직원들은 언제나 분주했는데, 엄청난 양의 자료들(도서에 부가하여 128,000권의 잡지)을 1952년 1달 동안에 힘들게 처리해야 하기도 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제5공군부대 도서관부는 13개의 주요거점 도서관과 49개의 병참부(기타 장서)와 야전도서관에 85,079권의 하드백 도서를 소장하고 있었다. 1954년 8월에는 병영도서관의 해산이 시작되었다. 3월경 그 작업은 완료되었고, 자료들과 직원들은 일본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전투지역에서 있었던 공군도서관 프로그램의 첫 번째 “전면적인”이동 운영이었다.

한국의 공군프로그램에 대한 결론에서, Stillman박사는 육군과 같지 않은 것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전투상황에서 적을 눈앞에서 직면하는 것으로, 공군은 전투지역의 안팎을 날아다닌다. 공군대원들은 정비와 험한 날씨를 타하며 땅 위에서 비행기와 같이 좀 더 오랜 기간 있고자 하는 “강요된 게으름”을 피운다. 도서 꾸러미와 도서관들은 비행이 시작된 후에 곧 필요해진다. 단위 부대는 보통 야전에서 장서를 간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고마워하고 기꺼이 그 일을 수행하였다. Stillman박사는, 한국의 전투지역에서 훌륭한 도서관서비스를 요구한 사람들은 “그들 비행사 자신들”이었다고 말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 후에 도서관 서비스가 미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제공되었을 때,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한 서비스가 미국 군대에 의해 지원되었을 때, 모든 군대는 훌륭한 도서관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군의 사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²⁷⁾

“Wilson Library Bulletin(1952년 6월호)”은 한국에서의 한 연대의 창의적인 활동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과 기사를 실었다. 제14보병 연대 제3대대의 한 장교는 연대의 책들과 다른 독서 자료들을 옮기기 위한 팩보드(pack-board, 등짐을 질 수 있는 I자형 판, 또는 지게) 도서관을 발명하였다. 나무 상자에 옮겨진 책들은 군인사서들의 등에 가죽 끈으로 매어졌다. 그들은 적군 감시 하에 있는 병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소대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작가 R. F. Karolevitz가 “팩보드 사서가 곧 한국 전선에서 가장 환영받는 구경거리 중 하나가 될 것이다”고 말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²⁸⁾

여기에서 사용된 “도서 보급창(library depot)”이란 단어는 규정에도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사령부들은 해산된 도서관들의 책을 처리하기위하여 기술서비스 지원 센터들과 보관구역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병영도서관들은 병력이 교체될 때 결코 정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고 그 서비스도 빠르게 이동되었다. 이러한 보급창들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오래된 책들에 대해

27) Ibid., p.164.

28) R. F. Karolevitz, “Packboard Libraries in Korea,” *Wilson Library Bulletin*, 26(June 1952), pp.823.

더 이상 요구가 없고 프로그램이 보다 연속적으로 되어 간다고 느낄 때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한국과 같은 고립된 지역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재개는 예측할 수 없었다. 야전도서관을 위한 하나의 중심적인 서비스 지역에 대한 요구는 아직까지 “도서관 보급창”으로써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군도서관시스템의 승인 하에 도서관 보급창 역할을 하는 중앙도서관들이 3개의 관할 지역 부대에 설치되었다: 주에 있는 예비부대를 지원한 미 본토사령부(Continental Command) 보급창; 태평양공군(당시는 ‘극동공군’, Far East Air Force로 알려져 있었음)보급창, 그리고 고립된 부대를 지원한 공군방위사령부(Air Defence Command) 보급창.²⁹⁾

1957년 *Library Journal*의 기사에서 당시 일본도서보급창(Japan Library Depot)에 주재하고 있었던 Mary Elizabeth Stillman은 공군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한 센터들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공군 대원들은 주의 깊게 선택되고 균형 잡힌, 그리고 광범위한 주제를 망라하는 현대의 독서 자료들을 정확하게 목록화한 장서 수집을 기대하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서지, 레퍼런스, 그리고 독자에 대한 자문 봉사를 빈번하게 요구함으로써 도서관의 “서비스”측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내 왔다.³⁰⁾

일본 병참부에서 제공한 서비스들은 자료의 기술적 처리와 배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의 확장된 서비스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중심적 참고수집, 서지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그리고 홍보 자료들의 중심적 조달”을 포함한 것이었다.³¹⁾ 참고 자료 수집은 기지 도서관에서 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기술적이었다. 이러한 자료 수집들은 전화와 편지를 통해 기지 도서관에 도달된 것이었다. 그들은 해산된 도서관들로부터 하나의 도서 축적의 보존소로써 지원되었다. 하나의 새로운 도서관이 설립되었을 때, 또는 때때로 재 설립된 경우가 되었을 때, 기지 사서들은 제일 먼저 병참부의 장서구성을 보기 위해 병참부를 찾아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장서를 모아 정리했던 사서들은 또 다른 도서관 장서로부터 폐기되거나 이용하지 않는 도서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병참부는 도서관 자원의 대부분을 만들 수 있게 하였고, “단순한 하나의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²⁾

이상 Stillman의 주요 기술과 그의 논문을 종합한 Harig의 글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병영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전쟁 당시 국내에 설치된 미군의 병영도서관에 대한 현황과 실제에 대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29) Stillman, *ibid.*, pp.101-2., quoting from semiannual reports of these commands during the appropriate periods.

30) Stillman, “Japan Library Depot,” *Library Journal*, Vol.82(May 15, 1957), p.1280.

31) Stillman, *ibid.*, p.1281.

32) *Ibid.*, p.1284.

주요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시작 시에는 국내에 병영도서관이 전혀 없었고, 보급판 수준의 도서가 일부 제공되고 있었는데 1951년 7월부터 병영도서관 설치계획이 준비되었다.

둘째, 1952년 6월경부터 병영도서관에 상시 배치인력으로 전문직 사서가 들어 왔으며, 이 들은 13개의 주요 거점의 병영도서관과, 12개의 야전도서관, 44개의 기탁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셋째, 전시 중에 병영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은 대구 사령부에 있었으며, 1953년 7월 휴전당시 전체 85,079권(하드백)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954년 8월 이후부터 전시체제하에 있었던 한국 내 병영도서관은 해산되기 시작했으나, 이 들 병영도서관 서비스가 군대의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특히 한국에서의 병영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을 갖게 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계를 응용한 L자형 등집 판(Pack-Board)을 이용하여 책을 날랐던 것으로, 그 편리한 이동성으로 인해 야전에도 쉽게 도서를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Ⅳ.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현황과 서비스 프로그램

1. 미국의 병영도서관 현황과 조직

병영도서관의 역사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미국 본토와 세계 각 처의 주둔지에 228개의 병영도서관을 설치하였다. 현재에도 미 국방부 산하에 등록된 것만 260여 개의 도서관이 있을 만큼 도서관은 군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대표적인 서비스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한 미군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현재 22개의 병영도서관이 있을 정도이다. 이 도서관들은 대부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자료와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들 병영도서관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공식 부서는 국방부 내의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로 이 곳에서 병영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군부대 사서를 모집하고 교육하기도 한다.³³⁾ 대표적인 지원 기관은 미국 특수도서관협회 내의 군사서분과(Military Librarians Division: 이하 MLD)이다. MLD는 특수도서관협회 내에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병영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다. MLD 조직은 이사회와 집행부가 있고, 그 밑에 8개의 위원

33) 특수도서관협회의 군사서분과의 병영도서관 목록은 미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 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 조직도 소개되어 있다. <<http://www.sla.org/division/dmil/millib.html>>
또한 육군도서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웹 팀의 조직도 나타나 있다.
<<http://www.libraries.army.mil/contact.htm>> [cited 2005. 8. 31].

회(Award, Bylaws, Membership, MLW Planning, Nominating, Publications,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c Planning)가 있다. 회원은 모든 미군(U.S Military Services), 캐나다 3군통합군(Canadian Combined Armed Forces), 다른 국가 군부대들, 기타 국방부 에이전시, 계약자와 판매자, 그리고 군부대의 도서관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과의 목적은 협회의 조직 내에서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세계적으로 직업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이 새로운 지식경영시대에 요구되는 핵심 경쟁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회원들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 곳의 운영은 병영도서관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포럼형식으로 진행되며, 봉사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을 돕는 각 부대의 회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고안해 내고 수행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전문직으로서의 발달을 장려하고 성공적인 국가방위를 위해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MLD는 연례 ALA회의, 자체의 연례분과회의, 정기적인 컨퍼런스와 워크숍(Military Librarians Workshop), 네트워킹, 위원회 참여, 뉴스레터 'The Military Librarian'(계간)의 발행 등 각종 프로그램 후원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³⁴⁾

이 외에 미국도서관협회의 라운드테이블로 운영되는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Federal and Armed Forces Libraries Round Table: 이하FAFLRT)』은 군에 근무하는 사서들로 조직된다. 이 FAFLRT는 미 연방정보 및 군 지역사회 내에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전문 업무를 촉진시키고, 연방/군도서관과 정보시설 및 자원들의 적절한 활용을 장려하는 조직이다. 또한 이 조직을 통해 연방/군도서관 계획과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연구와 발전을 진작시키고 있다.³⁵⁾

2. 미국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미국은 20세기이후 다양한 전쟁에 참여한 여파로 군부대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다양하며 전문화되어 있다. 특히 도서관지원프로그램은 크게 사기 진작과 복지, 레크레이션이라는 종합적인 틀에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군부대 도서관프로그램으로 미 국방부(펜타곤)의 육군도서관 프로그램(Army Library Program: 이하 ALP)이 있다.³⁶⁾

이 프로그램은 여러 관종(학술연구도서관, 통합도서관, 일반도서관, 사령부지원 도서관, 법률도서관, 의학도서관, 과학기술도서관, 기타 미군역사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군부대(Army Community)가 전자도서관서비스를 경유하여 선택된 웹 자원에 접근할 수

34) <<http://www.sla.org/division/dmil/AboutMLD.htm>> [cited 2005. 8. 31].

35) <http://lu.com/odlis/odlis_f.cfm#faflrt> [cited 2005. 8. 31].

36) <<http://www.libraries.army.mil>> [cited 2005. 8. 31].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의 하나의 전략적 지식경영 제공처로써, 군 부대의 성공적인 사명완수를 위한 관문으로써 봉사하는 것”이고, 그 사명은 “군대가 군인, 군속 및 그 가족들을 위해 교육, 연구, 훈련, 자기개발, 복지, 봉사활동, 평생 학습을 동시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하고 유지시키게 하는 전략적인 지식경영자원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사명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병영도서관 프로그램부』가 있다. 이 부 안의 병영도서관 사서는 260개의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전략적 계획, 정책 그리고 그 보다 많은 ALP의 전 세계 네트워크의 지지를 위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이들 병영도서관 사서들의 본부 사무실은 1997년부터 워싱턴 펜타곤에 자리 잡고 있다.

이 ALP가 제공하는 육군도서관 프로그램의 웹사이트는 ‘육군전자도서관서비스(Digital Army Library Service: 이하 DALS)’라는 포털 사이트로 설계되어 있다. DALS는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완전히 실행되면 ALP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 전자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DALS서비스는 OPAC 제공과 전자 레퍼런스 서비스, 전문자료제공을 포함하고 있다.

ALP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동적인 공동의 노력이 병영도서관 사서들의 전문적 지식과 부대의 지식경영지원과 원거리 학습 주도 등으로 결합되어 군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군의 개별 도서관의 장서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LP와 함께 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군부대 지원 도서관프로그램 서비스로 미 육군일반도서관프로그램(U.S. ARMY GENERAL LIBRARY PROGRAM)이 있다.³⁷⁾ 이 프로그램은 1984년 11월 육군부(Department of the Army)에 의해 설립된 미육군 및 가족지원센터(U.S. Army Community and Family Support Center: CFSC)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육군 병영도서관들은 CFSC를 통해 관리된다. 미 육군 일반도서관 네트워크는 군부대의 지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약 127개의 일반 도서관들이 세계 14개 국가에 있는 군 광역망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CFSC도서관프로그램 사무처는 정책, 프로그램 방향과 기준³⁸⁾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서비스도서관들의 평가와 조인, 도서관 활동과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사서들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하나의 자원으로서의 법령 등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CFSC 도서관프로그램사무처는 중앙집중식 수서 서비스를 통해 각 도서관의 도서와 전자참고도서의 구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 현재 미군은 한국 내에서도 주한 미군과 부속기구 직원 그리고 각 미군에 배속된 한국

37) <<http://www.armymwr.com/corporate/programs/recreation/libraries/>> [cited 2005.8.31].

38) 관련 기준으로 1)Army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Baseline Library Standards, 2)Department of Defense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Library Standards 등이 있는데 다음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armymwr.com/corporate/programs/recreation/libraries/librarystandards.asp>>
[cited 2005.8.31].

군인들을 위해 병영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IMA KORO MWR Libraries³⁹⁾ 라는 온라인 전자도서관 형식이 오프라인 도서관과 병행하여 지원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개별 도서관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도서관 협력망이다. 따라서 이 곳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분산되어 주둔하고 있는 22개소의 미군을 위해 동일한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다.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 시스템에 포함된 22개의 도서관 중 어느 도서관에서라도 자료를 대출 받을 수 있다.

V.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과 시사점

미국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은 지금까지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 본 미국의 병영도서관 역사와 병영도서관 전개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배열하여 그 추이와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표 1>은 20세기 이후의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다.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이미 병영도서관 서비스를 육군과 해군에서 실시하였다. 이 때 미국도서관협회가 의회도서관의 지도 하에 War Library Service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국회도서관 사서였던 Herbert Putnam 이었다.⁴⁰⁾ 이 때 사회적으로는 전시 도서관모금운동이 ‘밀리언달러 캠페인’으로 이루어 졌는데, 6개월간에 175만 달러의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Harig의 저서를 통해 알 수 있었다.⁴¹⁾

<표 1>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주요 역사

연도별	주요사항
1917	미국도서관협회, 의회도서관의 지도 하에 War Library Service 설립
1921	육군부 부관병과에 War Library Service(일종의 “과”나 “계” 개념의 조직) 설립 *이동도서관(순회 문고) 활동 시작
1940년대 초	최초의 병영도서관 전문직위 탄생(War Department Representative of the Army Library Service)
1945	일부 국회의원 병영도서관 서비스 반대, 이에 대한 일선 지휘관들의 성공적인 청원활동으로 병영도서관 서비스 지속
1950년대 이후	냉전과 함께 MWR Program 도입, 강화(※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1990년대 이후	병영도서관은 전 세계적으로 군부대 주둔지의 『MWR시설』 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음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디지털 병영도서관 서비스 및 네트워크화에 주력

39) <<http://eusa.library.net>> [cited 2005. 8. 31].

40) Harig, *ibid.*, p.ix(Foreword).

41) Harig, *ibid.*, p.x(Foreword).

1921년에 육군 내에 최초의 병영도서관 담당 전문부서가 생겼고,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228개의 도서관이 생기게 되었으며, 오늘날 민간에서 발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동도서관 봉사가 이 때 이미 군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또한 1940년대에 들어서서는 직제로써 병영도서관 전담 전문직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에 전문직 사서가 채용되었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병영도서관 예산지원 반대도 군의 일선 지휘관들의 청원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 것은 그만큼 일선의 군부대에서 병영도서관 서비스가 병사들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 그리고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들어 냉전이 시작되면서 강력한 군대가 요구되자 병영도서관 활동은 ‘군의 사기(Morale), 복지(Welfare)와 레크레이션(Recreation)’지원이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하: MWRP)하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전투도 이 MWRP를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여러 번의 환경변화에 따라 병영도서관관련 조직과 직제변경이 있었지만 1990년 이후 병영도서관은 소위 『MWR』시설의 중심에 있어왔고, 21세기 들어서서도 그 위용에는 변화가 없으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화와 더불어 디지털병영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표 2〉 한국에서의 미군 병영도서관의 역사

연도별	주요 사항
1951년 7월	극동아시아 공군사령부 사서였던 Virginia A. Staggers는 한국에 “항구적인 성격”의 병영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두고, 직원을 고 정배치하는 계획을 입안
1952년 1월	Staggers는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Dortha Surtees와 같이 입국하여 60일동안 활동함 이때 3500-4000권의 장서가 최초로 들어 오게 됨
1952년 6월	대구 사령부를 허브로 하여 13개 거점도서관, 12개 필드도서관, 44개의 기탁장서를 관리할 상시 직원으로 전문직 사서가 배치됨
1953년 8월	19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후, 1954년 8월부터 병영도서관 해산작 전 수행, 이 때 총 소장장서는 85,079권(하드백 도서)이었음

이상의 내용에서 의미 깊게 고려해 볼 사항은 먼저, 미국은 1917년에 전지 병영도서관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전문직 사서의 개입이 있었고, 이후 전문부서의 설립과 직제마련, 보직 수행과정에서 전문직 사서의 채용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서 본 한국전쟁 중의 미군의 병영도서관 서비스(표 2 참조)에 있어서도 1951년 7월 극동아시아 공군사령부 사서였던 Virginia A. Staggers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이 한국에서 그대로 실현되었고, 이후 많은 미국의 전문직 사서들이 한국에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병영도서관활동을 위한 노력이 처음에는 미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민간 주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군의 체계 내에서 자체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이 사서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군의 지휘관들의 요청,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통합

적으로 작용되었다는 점과 제도적으로 항구적인 시설(거의 '문화센터' 개념의 독립 공간)로써 역사적 환경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진화,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의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일보 등 일부언론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원입법을 통한 법제화까지는 성공했지만, 전문직 사서의 개입과 도서관단체의 지원, 일반 시민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미국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 중에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이후의 미국의 지속적인 전쟁 개입, 1970년대의 개병제로의 전환 등 한국군과 미국군 간의 근본적인 차이, 국제관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지만, 이들 실패요인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기본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병영도서관 건립운동'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을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한국 전쟁 중의 미군에 대한 병영도서관 서비스도 의미 있게 짚어 보았다.

병영도서관에 관한 연구는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군'이라는 특수성과 제한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고, 그 논문 수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자료 수집의 한계는 있었지만 소수의 결정적인 논문과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의 인터넷 자료를 종합하여 그 현황과 실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군부대 내의 도서관의 명칭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병영도서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 등에게 교육, 학습, 연구 및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으로 정의되었다. 미국에서는 'Military Library'라는 어휘가 공식적으로 쓰이지만 'Army Library'라는 단어도 혼용되고 있는데, 이는 육군도서관이 수적으로 월등하고, 그 역사가 대부분의 병영도서관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차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3군을 통칭하는 군대도서관('Force Library')이라는 명칭도 통용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역사는 1917년부터 시작되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성장해 갔다. 국방부 내에 병영도서관 전체에 대한 관장 부서가 있고, 군 근무부대별 특수근무분과의 도서관계가지휘·감독부서 라인에 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사기, 복지, 레크레이션 지원이라는 기본철학을 통해 병영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 국방부에 등록된 병영도서관만 260여 개가

되며, 주한 미군도 22개의 병영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군부대를 지원하는 부서로는 1953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협회의 '병영도서관사서분과'가 있고, 도서관협회의 '연방/군도서관 라운드테이블'이 조직되어 있다. 전 세계의 병영도서관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도서관으로 연결하여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육군도서관프로그램 (Army Library Program: ALP)이 그 중심에 있었다.

셋째, 한국전쟁 시작 시에는 국내에 미군의 병영도서관은 전혀 없었고, 1951년 7월부터 병영도서관 설치계획이 준비되었다. 1952년 6월경부터 병영도서관에 상시 배치인력으로 전문직 사서가 들어 왔으며, 이 들은 13개의 주요 거점도서관과, 12개의 야전도서관, 44개의 기탁소에서 근무하였다. 전시 중에 병영도서관의 중심적 역할은 대구 사령부에 있었으며, 1953년 7월 휴전당시 전체 85,079권(하드백)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54년 8월 이후부터 전시체제하에 있었던 한국 내 병영도서관은 해산되기 시작했으나, 이 들 병영도서관 서비스가 군대의 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에서의 병영도서관은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발전을 갖게 했는데 그것은 한국의 지계를 응용한 L자형 등짐 판(Pack-Board)을 이용하여 책을 날랐던 것인데, 편리한 이동성으로 인해 야전에 쉽게 도서를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발전과정 분석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병영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그들 미국의 병영도서관은 설립 초기부터 전문직 사서와 도서관 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계획,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 정부와 국회의 후원과정을 통해 조직화되면서 제도적으로 안착해서 항구적인 시설로써 환경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발전해 나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군의 병영도서관들은 군대의 교육과 사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개인과 지역의 군대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병영 사서들은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군인들과 그 부양가족들을 정서적으로나 지식 면에서 풍부하게 하고 교육의 즐거움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시에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국과 문화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봉사하였다. 곧 ALP의 사명대로 미국의 병영도서관은 군인, 군속 및 그 가족들을 위해 교육, 연구, 훈련, 자기개발, 복지, 봉사활동, 평생 학습을 동시에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식을 얻게 하고 유지시키게 하는 전략적인 지식경영자원처로의 그 존재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병영도서관 관련 정보원이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병영도서관의 규모나 세부적인 운영현황과 기준에 관한 우선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앞 서 공군도서관 위주로 기술되었던 한국전쟁시기와 그 이후의 미군의 한국에서의 병영도서관 운영사례도 향후 우리에게 발전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КСІ